

박해시기 선교사들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썼으며,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자신의 장상(長上)인 주교님이나 동료 신부, 고향의 친척 친지들에게 자신의 활동과 생활, 조선의 사정 등을 편지로 써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러한 편지들을 통해 선교사들의 사목 활동은 물론이고 당시 조선 신자들의 신앙과 생활 등을 엿볼 수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 가을호부터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로서는 1836년 최초로 조선에 입국하여 활동하다가 1839년 9월 21일에 군문효수형을 받아 순교한 모방 신부의 서한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 모방 신부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지도부에게 보내는 편지<sup>1)</sup>

(저번 호에 이어)

### [원문 84쪽]

그와 같은 보고를 저에게 해준 신자들은 “(세례를 받은) 신자들과 예비자의 총수는 얼마나”고 물어보니, 저는 그들이 저에게 말한 최소 숫자들을 우선 암산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들이 저에게 말한 큰 숫자들을 암산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과 더 가까운 숫자를 알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과 더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저희에게 보낸 편지<sup>2)</sup>에 말한 신자 총수와 이번에 말한 것을 비교해서 저는 미소를 지어놓고 난 뒤에 암산해서 알아낸 신자 총수를 말하자, 그들도 미소를 지으면서 “그게 아니라 더 많고 훨씬 더 많다”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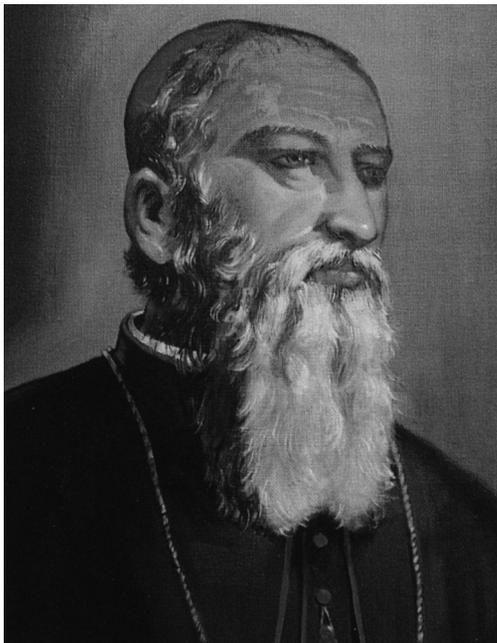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신자들이 현재에 사는 동네들을 열거했지만, 신자들은 고정적인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고정적인 거주지를 가지지 못합니다. 신자들은 인근의 비신자들에게 신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신자가 인근 비신자들에게 신자로 알려져 있어도, 매우 드문 일이겠지만 그 신자는 (자신이 신자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신자를 신자로 알게 되면 비신자들은 마치 나병환자를 멀리 하는 것처럼 그 사람(신자)을 멀리 할 뿐 아니라 그 신자를 괴롭히거나 그를 관원이나 군인들에게 밀고합니다. 그러면 그 신자는 체포되고 투옥됩니다. (과거와 다르게) 오래 전부터 사형을 당하는

1) 출처는 파리외방전교회 고문서고 1260권(MEP V.1260), ff.77~94으로, 모방 신부의 자필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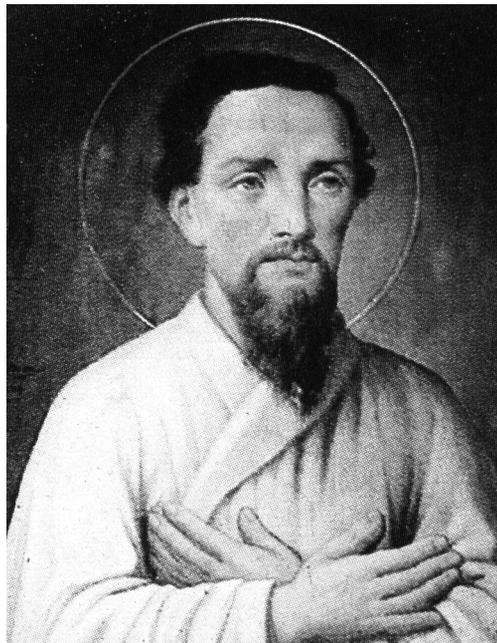
2) 그들이 과거에 저희에게 보낸 편지 : 어떤 편지를 말하는 것인지, 그 편지에 말한 신자 총수는 몇 명이었는지 알 수 없다. 1835년 1월 19일 조선신자들의 대표들이 브뤼기에르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선 신자는 수천 명이 되지만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고 했고(《브뤼기에르 주교 여행기》,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년, 333쪽), 1834년 11월 18일에 유방제 신부는 북경교구장 서리이었던 남경 교구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선 신자들의 숫자는 대략 2만명이라”고 했다.(같은 책 351쪽) 이번에 신자들이 모방 신부에게 말한 신자의 총수는 6~7천명 정도이다.

신자는 없지만, 체포된 신자들은 무기한으로 감금되거나, 배교하도록 심한 고문을 받고 배교하면 석방되는 것입니다 수원에서 살던 황(석지) 베드로<sup>3)</sup>는 것처럼 체포되어 작년[1835년]에 한양에 있는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배교하라고 강요하면서 자기를 고문하게 하는 관원들에게 베드로는 “시간이 좀 지나면 제가 너무 늙어서 죽을 텐데, 왜들 그러신가? 저는 지난 30년 동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왔는데, (이제) 혐오스러운 말을 한 마디 하여 천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분께 등을 돌리는 일이 있어서 안되겠다”고 했습니다.

비신자들에게 신자로 알려지기만 하면 틀림없이 직면하게 될 위험을 피하려고, 신자들은 서둘러 자기들의 부동산을 살 사람을 찾아보고, 찾아내면 그들에게 그 부동산을 팔아버리고 (재산을 챙기고 피난갑니다). 자기 부동산을 매입할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면 (비신자들에게 신자로 알려진) 신자들은 그 부동산을 버리고 나서, (놀란) 벌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산중으로 도주하거나 평화롭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다른 곳으로 피난 갑니다. 피난할 때마다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여러 번 피난해야 했던 많은 신자들은 글자 그대로 “이마에서 땀을 내야만” 연명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들은 너무 메말라서 남들이 경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척박한 산비탈을 개간합니다. 몹시 빈궁하게 살면서도 저를 만나러 올 때에 이 신자들은 100냥[프랑스의 50전]이나 약간의 식료품이나 생선이나 고기를 꼭 가져다줍니다. 그 신자들이 (저에게) 갖다 주는 것을 저 혼자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아참, 과일이나 다른 것도 갖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림1] 브뤼기에르 주교(초대 조선대목구장)



[그림2] 모방 신부

3) 황석지 베드로 : 달레 원저, 최석우·안응렬 역주, 《한국천주교회사》중권, 한국교회사연구소, 196~200쪽 ; 다블뤼 주교의 <비망기>(ff. 507~511) 참조.

유(방제) 신부의 사주로 신자들은 (한양) 시내에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 신부와 신자들은 작년과 재작년에 (조선)대목구를 위하여 일곱 채를 [원문 85쪽] 구매하느라고 500은전 이상을 써버렸습니다. 유 신부가 교우촌 사목 순회를 얼마나 했는지는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속소로 구입된 집과 다른 여섯 집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은 “그 집들이 이제 거의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30은전으로 구입한 어떤 집은 이제 잘해야 2은전이나 3은전으로 매도할 수 있을까 하는데,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라고 말들 합니다.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지 만),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나 박해가 일어날 조짐이 있는 중요한 이유로 그 집들을 꼭 팔아야 하는 사정이 아닌 한, 저는 다른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할 때까지 이 집들을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약 한 달 전에 유 신부는 저에게 이 일곱 집에 관한 모든 문서를 맡겨 주었기에, 조선대목구는 이 집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sup>4)</sup> 유 신부가 사목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보낸 후로,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60번이나 70번 이상으로 사목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sup>5)</sup>

저는 아직도 조선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 마을에서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주려고 와 달라”고 저를 졸라댁니다. 한자에 능통한 신자들은 고백하려 하는 것을 한자로 필기고백을 하겠다고 합니다. 한자를 모르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고백하려 하는 것을 통역자에게 말하고 나서 통역자가 한자로 쓴 것을 가져오거나, 데리고 온 통역자가 자기들이 조선어로 고백한 것을 중국어로 통역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해성사를 받으려 합니다. 유방제 신부는 (조선어를 배우지 않아서) 통역자가 써주었거나 말하는 방법으로, 곧 고해자의 고백을 읽거나 듣는 방법으로 고백을 받고 고해성사를 주곤 했습니다.

신자들이 최단 시일 내에 저로부터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조선에 입국하자마자 (외국어로 된) ‘양심성찰양식’을 조선어로 번역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런 작업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라틴어를 하거나 (적어도) 알아들을 수만 있었더라면, 유 신부가 저를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는 라틴어를 할 줄도 모르고<sup>6)</sup>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분과 대화할 때에 저는 중국어로 말해야만 했습니다. 유 신부가 과거에 배운 라틴어를 다 잊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보면 자기들의 모국어까지 잊어버리는 유럽인들이 간혹 있으니, 유 신부가 (몇 년 전에 배웠으나 사용하지 않은) 라틴어를 잊었다 해도 아주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중국의) 복건성에 있었을 때에 들은 이야기인데, 필리핀의 어느 대목구에서 활동하던 어떤 스페인 신부가 모국어를 다 잊어버려서 스페인 말로 ‘부에르 (Pouer)’<sup>7)</sup>이라는 말밖에 못했었습니다.

4)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 신부가 모방 신부보다 먼저 조선에 들어왔으나, 모방 신부는 대목구장 권한 대행이었다.

5) 유 신부가 ... 않았습니다 : 본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에 이어서 나온 글이다. 문장의 하반부는 지워져 있다. 유 신부는 1834년 11월 18일자로 북경교구장서리이었던 남경교구장에게 활동보고서를 보냈는데, 남경교구장은 이를 브뤼기에로 주교에게 보냈다. ‘60번이나 70번 이상으로 사목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60명이나 70명에게 성사를 베풀어 주었을 뿐이다’는 의미로 보인다.

6) 라틴어를 할 줄도 모르고 : 유방제 신부는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신학공부를 하였기에, 라틴어를 많이 배웠을 것이다. 라틴어로 1834년 11월 18일에 북경교구장 서리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서 라틴어를 할 줄을 알고 알아들을 수 있었다. (《브뤼기에르 주교 여행기》, 350쪽~354쪽)

7) 부에르: 스페인어를 할 줄을 아는 사람한테 그 말의 의미를 물어보았는데, 모른다는 대답만 들었다. (곧 모르는 말이라고 대답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양심성찰양식’을 번역하는 일에 유 신부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도), 저는 ‘양심성찰양식’을 한문으로 번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자들이 제가 한 그 일을 이해하였기에, 저는 그 번역 작업을 계속했고 그 작업을 이번 부활대축일 후에 마칠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글을 써서 곧 신자들이 고백할 것을 한자로 써주면 저도 이처럼 서면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을 붓으로 한자를 써 줌으로써 유효한 고해성사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신자들이 대단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신자들은 글을 통해 고해성사를 받으려 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너무 빼앗겼습니다. (한자를 모르는 이들에게) 통역자를 통해서 하는 고백이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려 했는데, 이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죽을까, 또 제가 먼저 죽을까 걱정이 되어서 통역자를 통한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 [원문 86쪽]

저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모든 이들에게 고해성사를 주었고 한자를 쓰고 볼 줄 아는 여러 사람과 병자와 노인들, 또한 고해성사를 받기 전에 제가 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판단해서 제 질문에 대답한 몇 명의 사람에게도 고해성사를 주었습니다.

저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일들을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해도, 조선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한양에 도착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제가 유방제 신부에게 “길러준다고 한 2명의 예비신학생이 얼마나 배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유 신부는 두 명의 청년을 다른 집에 데리고 있었습니다. 두 명의 청년 가운데 하나는 홀아비인데, 유신부가 말한 대로, 유달리 게으르고 공부를 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청년은 저에게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청년은 이미 받은 학대를 피하기 위하여 부모의 집에서 도망해 온 청년인데, 약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사방에 아들을 찾고 있을 때에 저는 (누구를 시켜) 그 청년의 성소(聖召)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 청년은 수도 없이 많은 이유를 내세우면서 사제가 될 수 없다고 말하다가 자기의 참 고민을 털어 놓았습니다. 신자가 아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신자가 아닌 여자와 (역지로) 약혼을 하게 했는데, 제가 그 청년에게 그 약혼에 대한 무효 조치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자, 그는 더 이상 걱정할 것 없어 보이고 만족해 보였습니다.

유 신부는 또한 세례를 받은 지 2,3일 만에 죽은 어떤 아이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숲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동네에서 혼자 빠져 나간 그 아이는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호랑이는 아이에게 덤벼들어서 겁을 주다가<sup>8)</sup> 잡아먹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어도) 천주교를 이미 알고 신봉하던 아이가 힘을 다 해서 “예수 마리아,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마리아, 저를 도와주소서”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움직일 때마다 아이와 놀려고 하기만 하였고 아이에게 어떤 상처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외친 소리를 들은 아이의 부모와 몇몇 사람은 집에서 나와 예수님과 성모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외치는 아이에게

8) 겁을 주다가 : 원문의 gouspilla는 프랑스어 사전에 나오지 않는데, houspilla가 맞다고 여겨진다. houspilla는 귀찮게 했다, 학대했다, 혼냈다, 겁주었다는 뜻이다.

달려갔다가, 아이를 집에 데려 갔습니다. 아이를 보호해 주시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구해주신 천주께서는 그 아이에게 천주교 신자의 인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이는 세례를 받은 지 4일 만에<sup>9)</sup> 죽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원문대조 · 역주 : 최세구(Jézégou) 로베르 신부 (파리외방전교회)



[그림3] 의주를 통해 조선에 입국한 유방제 신부

9) 4일 만에 : 앞에서는 '세례를 받은 지 2,3일 만에' 죽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4일 만에' 라고 하니 서로 말이 맞지 않는다.

24

Cette relation faite ils me demanderent le nombre total des chrétiens et catéchumens  
je calculai le moindre des nombres que j'ai donné; car c'est celui qu'ils m'indiquent; j'ai  
ajouté quatre pour m'approcher le plus possible de la vérité; quoique peut-être  
je m'en suis écarté d'avantage, quand il M<sup>e</sup> vivand souriant au souvenir du  
nombre qu'il nous avoit indiqué. Dans leur lettre et leur énoncé celui qu'ils  
venaient de me donner; ils se recrièrent aussi en siant to, to, to, (langage chin,  
qui signifie beaucoup, beaucoup, beaucoup ou bien beaucoup plus, beaucoup  
plus).

Voilà bien les villages connus ou habités par les chrétiens aujourd'hui  
mais leur domicile n'est point fixe; <sup>ou plutôt ils n'en ont pas.</sup> les chrétiens ne sont point connus  
pour chrétiens par les payens qui les avoisinent ou c'est à leur insçu. ce  
qui est très rare des que les payens connoissent un chrétien ils l'évitent comme  
un lépreux, le vexent eux-mêmes ou le dénoncent au mandarin ou aux militaires;  
on le saisit et l'emprisonne. Depuis long temps on ne les met plus à mort mais on  
les retient en prison ou les relâche après les avoir rudement fustigés et les  
forçant d'ex<sup>er</sup> sollicitant à apostasier. pierre houang originaire de souan arrêté  
et emprisonné de cette manière mourut l'an dernier dans les prisons de haniang,  
quoi répondoit il au mandarins qui le faisoient fustiger et le vouloient faire  
apostasier, je vais bientôt mourir de vieillesse; il y a trente ans que j'observe les  
commandemens du seigneur du ciel et de la terre, à Dieu ne plaise que je  
perde par un mot infame l'union et l'union avec mon Dieu, pour éviter au  
danger certain dans lequel ils sont lorsqu'ils sont connus par les payens; ils  
vendent promptement leur domaine lorsqu'ils trouvent des acheteurs, s'ils n'en  
trouvent par ils l'abandonnent et fuient comme des abeilles dans un lieu  
qu'ils ont depuis inhabité entre les montagnes ou dans tout autre endroit  
qu'ils croient pouvoir habiter en paix. cette émigration plusieurs fois répétée en  
suffisant avec un grand détournement de leur temps. <sup>+ de leur</sup>  
à déjà recueilli un grand nombre à vivre dans la rigueur, à la sueur de leur front  
cultivant la terre ingrate des montagnes que d'autres négligent à cause de sa stérilité.  
Quoique dans la misère ils ne viennent cependant pas me voir qu'ils ne m'apportent  
une centaine de la pice, environ 50 sols ou quelques provisions de  
bouche du poisson, <sup>de quelques</sup> <sup>canes</sup> <sup>et</sup> <sup>des</sup> <sup>pois</sup> beaucoup que j'en n'en dépenserois si j'étois seule de  
fruits etc... ils s'attachent imaginant avec M<sup>o</sup> ju qu'il falloit acheter un nombre de  
Maisons dans la ville <sup>de</sup> <sup>et</sup> <sup>ont</sup> employé l'année dernière et la précédente plus de

[Provider:article] Download by IP 121.190.18.182 at Saturday, September 14, 2019 9:07 AM

81 3

500 onces d'argent. <sup>on acheta</sup> pour la Missions  
 pour une partie à quoi s'est bornée l'utilité d'une auberge et de 6 autres maisons  
 qu'ils ont achetée. Ils me disent qu'aujourd'hui ces maisons ne valent pas à beaucoup  
 près la somme qu'elle ont coûté, il n'est estimé une d'elle qui a coûté 30 onces d'or.  
 à deux ou 3 onces tout au plus et quasi sic de ceteris. je laisse et laisserai tout in statu  
 quo jusqu'à l'arrivée de quelque autre Missionnaire à moins que quelque raison  
 graves comme la nécessité d'argent ou la menace d'une persécution ne le deman-  
 dent autrement. Né qu'il y a environ un mois me remit les papiers qui nous  
 donnent et assurent ces possessions. Depuis l'époque où il ~~envoya~~ la relation de ses  
 administrations et jugea sur les rapports qui <sup>me furent</sup> faits et n'en ~~avait~~ fait plus  
 80 de ses administrations.

Quoique je ne connoisse pas encore la langue coréenne cependant les chrétiens  
 de 12 villages me pressent d'aller les visiter et entendre leur confession. Ceux qui  
 connoissent les caractères chinois ont écrit leur confession en caractères  
 chinois, ceux qui ne les connoissent pas veulent absolument la faire interpréter  
 ou ~~par~~ en l'écrivant ou verbalement en langue chinoise. C'est la manière dont M<sup>r</sup> de  
 entendait les confessions. pour m'utiliser le plus promptement possible je voulu  
 en arrivant faire traduire en langue coréenne une formule d'examen, il falloit  
 la faire. M<sup>r</sup> de aurait pu m'aider s'il avoit pu parler ou comprendre la langue  
 latine mais j'étois obligé de converser en chinois avec lui, il ne <sup>me</sup> comprendra pas plus  
 latine qu'il ne la parloit, il voit l'avoir oubliée, cela ne tonnera pas ceux qui savent  
 que quelques européens ont hérité aussi leur <sup>propre</sup> langue. ~~on~~ me raconta au fokien  
 qu'un prêtre espagnol dans les Missions des philippines ne s'avoit plus dire  
 que ~~peu~~ en espagnol, j'essayai d'écrire cette formule en chinois; on me  
 comprit, je continuai à l'écrire et je la finirai après paquer. quand les  
 nos chers chrétiens connurent que je pouvois user de cet expédient pour entendre  
 leurs confessions, les recevoir écrites en chinois et leur parler avec le finis <sup>sent</sup>  
 ils se crurent aux anges je ne fus plus maître de mes moments. tous voulent  
 se confesser. je leur ai dit qu'ils voient que je n'aime pas à me servir  
 d'interprète. ils craignent de mourir ou que je ne meure avant qu'ils se soient  
 confessés, ils me font prier de leur permettre de se confesser ~~par~~ un interprète

[Provider:article] Download by IP 121.190.18.182 at Saturday, September 14, 2019 9:07 AM

J'ai déjà entendu la confession de tous ceux qui <sup>peuvent parler</sup> la langue chinoise  
 d'un grand nombre d'autres qui comprennent le caractère et d'autres que les circonstances  
 de maladie, de vieillesse et d'autres ou les instances après les questions préli-  
 minaires que j'ai cru devoir faire précéder la confession. la multitude de ces  
 affaires que je ne puis me dispenser de traiter ne me laisse que très peu de temps  
 pour étudier la langue, quoique je ne passe sur chacune que très peu de temps strictement  
 suffisant.

qu'il nous  
 ripint dans  
 une mai-  
 son de pei

Je demandai à M<sup>rs</sup> qui presque aussitôt après mon arrivée ce que j'avois  
 les deux élèves qu'il nous avoit annoncés, il me proposa en effet deux genres  
 un veuf qui me dit-il est d'une paresse extraordinaire et incapable d'étudier  
 ce jeune homme ne m'a jamais fait proposer d'étudier et n'est apparemment jamais  
 eu le véritable desir. l'autre étoit un jeune homme échappé de la maison <sup>de son</sup> ~~de son~~  
 pour éviter les mauvais traitements; il étoit fiancé et son père le cher-  
 choit pour conclure le mariage, je le fis questionner pour connoître sa vocation  
 il ne fut ce point d'exposer des raisons pour le montrer qu'il ne pouvoit être prêt  
 ou plutôt pour exprimer sa véritable volonté, il ne me parut libre d'inqui-  
 tude et content que lorsque je lui ~~proposai~~ <sup>proposai</sup> la dispense pour terminer le  
 mariage avec la payenne à qui son père aussi payen l'avoit fiancé.  
<sup>Il me</sup> ~~Il me~~ parla encore d'un autre enfant qui étoit mort deux ou trois jours après  
 son baptême. voici les circonstances de sa mort. cet enfant s'étoit écarté seul  
 du village probablement au bord d'une forêt. un tigre se lança sur lui le  
 gousilla et l'aurait ~~probablement~~ <sup>probablement</sup> dévoré; mais cet enfant connoissoit et obser-  
 voit la religion chrétienne; alors il se mit à crier de toutes ses forces Jésus et  
 Marie ayez pitié de moi Jésus et Marie ayez pitié de moi. de ce moment  
 le tigre ne fit plus que jouer avec lui tantôt le remuait, sans le blesser.  
 cependant les parents de cet enfant <sup>et plusieurs personnes</sup> ~~sortirent~~ <sup>l'aperçurent</sup> et s'entendirent  
 leur enfant <sup>pleurer</sup> ~~pleurer~~ Jésus et Marie ayez pitié de moi ils coururent plusieurs  
 à son secours et l'apportèrent à la maison ~~paternelle~~ <sup>paternelle</sup> la divine providence  
 l'avoit conservé et délivré de cet accident pour lui faire imprimer le ca-  
 ractère du chrétien on le baptisa et il mourut quatre jours après.

[Provider:rearticle] Download by IP 121.190.18.182 at Saturday, September 14, 2019 9:07 AM

(저번 호에 이어)

[원문 84쪽]

Cette relation faite, ils me demandèrent le nombre total des chrétiens et catéchumènes. Je calculai le moindre des nombres que j'ai donnés ; car c'est celui qu'ils m'indirent<sup>2)</sup> ; j'ai ajouté l'autre pour m'approcher le plus possible de la vérité ; quoique peut-être je m'en sois écarté davantage. Quand ils me virent souriant au souvenir du nombre qu'ils nous avaient indiqué dans leur lettre et leur énonçant celui qu'ils venaient de me donner ; ils se récrièrent aussi en riant to, to, to, (langage chinois qui signifie beaucoup, beaucoup, beaucoup ou bien beaucoup plus, beaucoup plus.)

Voilà bien les villages connus où habitent les chrétiens aujourd'hui, mais leur domicile n'est point fixe, ou plutôt ils n'en ont pas ; les chrétiens ne sont point connus pour chrétiens par les payens qui les avoisinent ou c'est à leur insu. Ce qui est très rare. Dès que les payens connaissent un chrétien ils l'évitent comme un lépreux, le vexent eux-mêmes ou le dénoncent au mandarin ou aux militaires. On le saisit et l'emprisonne. Depuis longtemps on ne les met plus à mort mais on les retient emprisonnés ou les relâche après les avoir rudement fustigés et les ~~forçant d'~~en les sollicitant à apostasier. Pierre Houang, originaire de Souan arrêté ~~et emprisonné~~ de cette manière, mourut l'an dernier dans les prisons de Haniang. "Quoi, répondait-il, au mandarins qui le faisaient fustiger et le voulaient faire apostasier, je vais bientôt mourir de vieillesse? Il y a trente ans que j'observe les commandements du Seigneur ~~et créateur~~ du ciel et de la terre, à Dieu ne plaise que je perde par un mot infâme l'amour et l'union avec mon Dieu." Pour obvier au dangers certains dans lesquels ils sont lorsqu'ils sont connus par les payens, ils vendent promptement leur domaine lorsqu'ils trouvent des acheteurs. S'ils n'en trouvent pas, ils l'abandonnent et fuient comme des abeilles dans un lieu ~~qu'ils ont disposé~~ inhabité entre les montagnes ou dans tout autre endroit qu'ils croient pouvoir habiter en paix. Cette émigration plusieurs fois répétée ~~et~~ toujours avec un grand détriment à leur

1) 판독본은 지정환 신부의 판독 자료를 바탕으로 원문과 대조하여 만들었다. 원문 그대로 판독하되 다음의 원칙을 두었다. 1. 몇몇 단순한 철자오기와 예전의 표기는 어법에 맞게 고쳤다. 모방신부는 반과거의 어미 대부분과 일부 명사·동사어간에서 -ai-를 -oi-로 썼고, sc(현대 s)를 썼고, 악센트(특히 accent aigu)를 안 쓴 경우가 많다. 예전 표기 payen은 그대로 두었다. 2. 문장의 첫 글자와 고유명사의 첫 글자가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문자로 고쳤다. 모방 신부는 거의 대부분 소문자로 썼다. 3. 문맥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쉼표·마침표·물음표·겹따옴표·콜론과 세미콜론을 삽입했다. 모방 신부는 특히 쉼표를 안 쓴 경우가 많다. 4. 문맥상 필요한 단어가 빠져 있을 경우 ◇괄호에 넣어 삽입했다. 5. 삭제 표시와 밑줄과 밑줄임표는 모두 원문을 따랐다.

2) m'indiquèrent를 잘못 쓴 것 같다.

temporel, a déjà réduit un grand nombre à vivre dans la rigueur <sup>des termes</sup> à la sueur de leur front, cultivant la terre ingrate des montagnes que d'autres négligent à cause de sa stérilité. Quoique dans la misère, ils ne viennent cependant pas me voir qu'ils n'apportent une centaine de sapèques, environ 50 sols, ou quelques provisions de bouche, du poisson, <sup>et des viandes</sup> beaucoup <sup>plus</sup> que je n'en dépenserais si j'étais seul, des fruits etc... Ils s'étaient imaginé avec M<sup>F</sup> Yu qu'il fallait acheter un nombre de maisons dans la ville. ~~ils~~ <sup>Mr Yu avec eux</sup> ont employé l'année dernière et la précédente plus de

[원문 85쪽]

500 onces d'argent, <sup>à en acheter 7 pour la Mission.</sup> Vous avez connu le nombre des administrations de M<sup>F</sup> Yu : c'est pour une partie à quoi s'est bornée l'utilité d'une auberge et des 6 autres maisons qu'ils ont achetées. Ils me disent qu'aujourd'hui ces maisons ne valent pas à beaucoup près la somme qu'elles ont coûté, ils en estiment une d'elle qui a coûté 30 onces d'argent à deux ou 3 onces tout au plus, et quasi sic de cæterii. Je laisse et laisserai tout in statu quo jusqu'à l'arrivée de quelqu'autre missionnaire à moins que quelques raisons graves comme la nécessité d'argent ou la menace d'une persécution, ne le demandent autrement. M<sup>F</sup> Yu, il y a environ un mois, me remit les papiers qui nous donnent et assurent ces possessions. Depuis l'époque où il envoya la relation de ses administrations à juger sur les rapports que j'ai <sup>reçus</sup> fait il n'en <sup>a</sup> pas fait plus 60 ou 70 administrations.

Quoique je ne connaisse pas encore la langue coréenne, cependant les chretiens[chrétiens] de 12 villages me pressent d'aller les visiter et entendre leurs confessions. Ceux qui connaissent les caractères chinois ont écrit leur confession en caractères chinois ; ceux qui ne les connaissent pas veulent absolument la faire interpréter ou en l'écrivant ou verbalement en langue chinoise. C'est la manière dont Mr Yu entendait les confessions. Pour m'utiliser le plus promptement possible je voulus en arrivant faire traduire en langue coréenne une formule d'examen. Il fallait la faire. Mr Yu aurait pu m'aider, s'il avait pu parler ou comprendre la langue latine, mais j'étais obligé de converser en chinois avec lui, il ne <sup>me</sup> paroissoit pas <sup>plus</sup> comprendre la langue latine qu'il ne la parlait, il doit l'avoir oubliée. Cela n'étonnera pas ceux qui savent que quelques européens oublient aussi leur <sup>propre</sup> langue. On me raconta au Fokien qu'un prêtre espagnol dans les Missions des Philippines ne savait plus dire que pouer en espagnol. J'essayai d'écrire cette formule en chinois ; on me comprit ; je continuai à l'écrire et je la finirai après Pâques. Quand ~~les~~ nos chers chrétiens connurent que je pouvais user de cet expédient pour entendre leurs confessions, les recevoir écrites en chinois et leur parler avec le pinceau ils se crurent aux anges. Je ne fus plus maître de mes moments. Tous voulurent se confesser. Je leur ai fait ~~dire qu'il~~ voir que je n'aimais pas à me servir d'interprète. Ils craignent de mourir ou que je ne meure avant qu'ils se soient confessés, ils me font prier de leur permettre de se

confesser par interprète.

[원문 86쪽]

J'ai ~~déjà~~ entendu la confession de tous ceux qui ~~comprement~~ peuvent parler la langue chinoise, de plusieurs autres qui connaissent les caractères et <sup>des</sup> autres que les circonstances de maladie, de vieillesse et autres ou les instances après des questions préliminaires que j'ai cru devoir faire précéder la confession. La multitude des affaires que je ne puis me dispenser de traiter ne me laisse que très peu de temps pour étudier la langue, quoique je ne passe sur chacune que le temps strictement suffisant.

Je demandai à M<sup>F</sup> Yu presque aussitôt après mon arrivée ce que savaient les deux élèves qu'il nous avait annoncés ; il me proposa en effet deux gens qu'il nourrissait dans une maison séparée un veuf qui, me dit-il, est d'une paresse extraordinaire et incapable d'étudier ; ce jeune homme ne m'a jamais fait proposer d'étudier et n'<sup>en</sup> a assurément jamais eu le véritable désir. L'autre était un jeune homme échappé de la maison <sup>de son</sup> père pour éviter les mauvaitements<sup>3)</sup> mauvais ; il était fiancé et son père le cherchait pour conclure le mariage. Je le fit questionner pour connaître sa vocation. Il ne ~~fit~~ cessait d'exposer des raisons pour démontrer qu'il ne pouvait être prêtre ou plutôt pour exprimer sa véritable volonté. Il ne me parut libéré d'inquiétude et content que lorsque je lui promis la dispense pour terminer le mariage avec la payenne à qui son père aussi payen l'avait fiancé. M<sup>F</sup> Yu me parla encore d'un autre enfant qui était mort deux ou trois jours après son baptême. Voici les circonstances de sa mort. Cet enfant s'était écarté seul du village probablement au bord d'une forêt. Un tigre se lançât sur lui le gouspilla<sup>4)</sup> et l'aurait ~~probablement~~ dévoré ; mais cet enfant connaissait et observait la religion chrétienne ; alors il se mit à crier de toutes ses forces "Jésus et Marie, ayez pitié de moi, Jésus et Marie, ayez pitié de moi" ; de ce moment le tigre ne fit plus que jouer avec lui toutes fois qu'il remuait, sans le blesser. Cependant les parents de cet enfant et <sup>plusieurs personnes</sup> sortent, l'aperçoivent et l'entendent ~~leur enfant~~ crier "Jésus et Marie, ayez pitié de moi." Ils courent plusieurs à son secours et l'apportent à la maison ~~patern~~. La Divine providence l'avait conservé et délivré de cet accident pour lui faire imprimer le caractère du chrétien. On le baptiza et il mourut quatre jours après.

(다음 호에 계속)

3) mauvais traitements을 잘못 쓴 것 같다.

4) houspilla를 잘못 쓴 것 같다.